

극락세계 갈 시간을 돌려놓고 20년을 더 살았으니...

26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보원사지

우리는 왜 시간이 흐른다고 표현할까? 물이 흐르듯 시간도 쭈뼛쭈뼛 흐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쭈뼛쭈뼛 얼어붙은 계곡에서는 시간이 흐름을 멈추고 있을까? 얼음장 밑에서 흐르는 물처럼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일까?

신년벽두 시간의 흐름을 두고 망상을 피웁니다. 불현듯 시간이 멈춰 선 곳은 없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 곳이야 없겠지만 그런 의미를 간직한 곳은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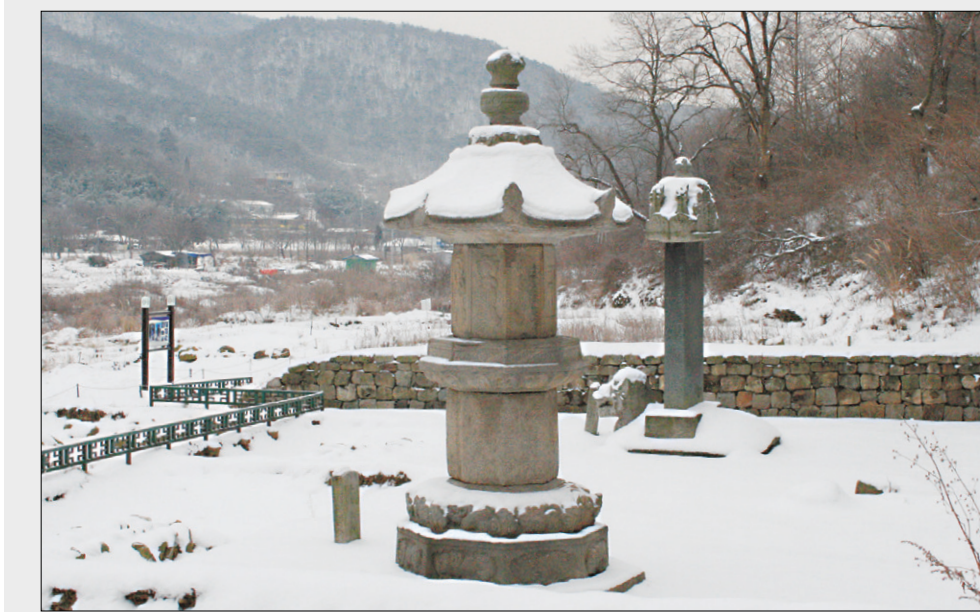
그래서 충남 서산으로 달려갑니다. 솜이불을 덮은 듯이 포근한 백제의 미소가 있는 곳. 드넓은 옛 절터에 큰스님의 법향이 남아 있는 곳을 찾아 갑니다. 보원사지(普願寺址, 사적 제361호) 가는 길이 바로 시간이 멈춰선 것 같은 곳입니다. 한과 주의보가 내린 겨울날이어서 길은 미끄러워도 마음결은 단단하기만 합니다.

보원사지 그 넓은 터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옛 절터를 뒤덮은 눈은 이곳의 시간도 덮어서 흐름을 정지시킨 듯합니다. 높다란 당간지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간대를 지탱하고 있는 듯하고 5층 석탑의 옥개석마다 천상의 신들이 걸터앉아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는 듯합니다. 당간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깃발의 소리와 석탑에 걸터앉은 천상 신들의 주악이 한 줄기의 겨울바람으로 불어 멈춰진 시간을 가버려듯 과거 속으로 물고 가는 느낌입니다.

당간지주와 5층석탑 뒤편에 네모나게 다듬어진 반듯한 터에 웅장한 부도가 하나 서 있고 그 옆에 탐비가 서 있습니다. 고려 태조의 귀의를 받고 그 아들 광종의 존경을 하늘같이 받아 왕사와 국사를 지낸 법인국사(法印國師, 900~975)의 영롱한 삶이 전해지는 공간입니다.

현된 2년(955) 여름에 대사는 법체가 정상을 여겨 불편하여 정그린 얼굴로 질병을 보았다. 어느 날 밤 꿈에 거사 30여 명이 배를 뚫고 와서 "대사를 배에 모시고 서방극락세계로 가려고 왔습니다."고 하였다. 대사가 이르기를 "이것이 내가 타고 서방으로 갈 반야용선이구나." 하고 다시 말하기를 "정성껏 천교(天敎, 불교)를 펴서 널리 고해중생을 제도하려 하였으나, 내가 세상을 떠나는 때가 어찌 그다지도 급히 왔는가."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거사들이 다음시기로 미루고 배를 되돌려 갔다. 그 후 수명이 오래 연장되어 화엄종지를 더욱 왕성하게 했으니 이는 정신이 몽매에 통하고 영혼이 유명(幽明)을 경험 한 것이다.

현인 국사가 입적한 시기는 975년이고 위 비문의 내용에서 극락세계로 가려다가 시간을 유예시킨 시



보원사지에 오롯이 남은 법인국사 부도와 탐비.



옛 보원사의 규모를 짐작케하는 당간지주.

기는 955년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앓아 극락세계로 반야용선을 타고 가려다가 '몽매에 통하여' 다시 이승의 삶을 이은 것이 20년이나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사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경지를 수행의 높은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물론 그것이야말로 탐착이며 망상이란 것을 알지만,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고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하는 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기만 합니다. 법인국사는 바로 생사의 길에 놓인 시계 바늘을 자유 자재로 돌렸던 분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연일 한과가 몰아치니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도인의 경지가 새삼 부럽기만 합니다.

경인년, 호랑이의 해를 말하자니 법인국사의 비문에 나오는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불도량에 들어가 향을 사르고 기도하던 중 7일째 되는 날 밤 꿈에 500명의 스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스님의 소원을 부처님께서 들어 주셨음을 알려 드리니, 화사(畫師)를 청하여 오백나한(五百那汗)의 행화를 그려 안선보국원(安禪報國院)에 모시도록 하십시오"라고 권했다. 대사가 꿈에 이 같은 지시를 받고 말하기를 "옛날 내가 보원사에 있을 때 3번(三本) 화엄경을 봉지하고 날마다 중야(中夜)에 불상을 모신 법당에서 경행(經行)하기를 몇 년을 계속 하였다. 홀연히 어느 날 밤 삼보전 객실 앞에 한 스님이 있기에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성주원(聖住院)에 주석하는 오백나한(五百那汗)인데 인연 따

라 제각기 지나게 되어 이곳을 경과하게 되었으니 원컨대 여기에 머물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압방을 요청하였다. '지객(知客)인 삼보에게로 가라'고 하였는데 밤을 찿고 내 방 쪽으로 가기에 내가 먼저 방으로 돌아가서 들어오라고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지객에게 "어제 밤에 객스님이 온 적이 있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지객은 "밤새도록 아무

법인국사의 부도(보물 제105호)는 키가 웅장합니다. 높이가 4.7m인 이 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옥개석을 두껍게 덮은 눈과 지대석까지 덮어버린 눈이 부도의 화려한 전모를 감상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눈이 덮인 모습을 볼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하니, 눈에 덮인 부도의 맵시는 겨울 부도밭 여행의 또 다른 맛으로 다가옵니다.

탐비의 이름은 '가야산 보원사 고국사 제증시 법인삼중대사지비'입니다. 흔히 '해미 보원사 법인국사 보습탑'이라고 합니다. 대사를 왕사로 모시다가 입적 직전에 국사로 모신 고려 광종이 내린 시호가 보습탑(寶濕塔)입니다. 비문은 한림학사 김정언(金廷彦)이 왕명을 받들어 지었고 글씨는 한운(韓允)의 솜씨입니다.

법인국사 탄문(탄文) 스님은 신라말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꿈자리가 심상치 않았으니, 한 스님이 황금빛 과자를 주는 꿈을 꾸고 임태했다고 전합니다. 법인국사는 일찍이 출가를 원했는데 어머니가 태몽을 생각하며 흔쾌히 출가를 허락했다고 하니 전생부터의 지중환 법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가 살던 향성산 옛 절터에 암자를 짓고 수행했으며 스승 신암대덕에게 화엄경을 배웠습니다. 화엄종의 승려였던 법인 국사는 925년에 태조의 왕후 유씨가 인신을 하자 왕명을 받고 아들을 낳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왕자가 후일의 고려 4대 왕 광종입니다. 광종은 지방 호족 세력

중심의 초기 고려를 왕권 중심의 강성한 국가로 변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만큼 그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이 많았을 것이고 정신적 귀의처인 법인국사의 조력이 필요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종의 절대적인 신임과 법인 국사의 흐트러짐 없는 수행이 결부되어 한 시대의 정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법인 국사의 법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어린 아이 같은 궁금증을 비문의 한 대목이 풀어줍니다. 천복 7년(942년 태조25) 7월 황해도 연안지역에 해충인 황벌레가 농작물의 싹을 마구 뜯어 먹고 있었다. 그리하여 퇴충기도를 위해 대사를 범주로 모시고 <대반야경>을 강설하기로 하였다. 스님이 여시아문 운운으로부터 일음(一音)으로 벌을 연설하자마자 모든 해충들이 물러갔으며 그 해에 풍년이 들어 태평을 이루었다.

세상에 별레 쫓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퇴충기도'를 올려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을 겁니다.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대반야경>을 강설하는 법식을 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여 기복에만 쫓아다니는 지혜는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법인 국사는 기복을 반야의 지혜로 승화시킨 대덕인 것입니다.

보원사지에 서면, 눈 덮인 보원사지에 서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합니다.

거기 깊은 침묵으로 서 있는 당간지주와 5층 석탑 그리고 법인국사 부도와 탐비가 시간을 자꾸만 뒤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사실 아득한 과거 속에 빛나는 법성(法性)은 오늘의 보원사지에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발굴중인 보원사지 당간지주 석탑 등 보물 즐비 너른 절터 눈 덮인 법인국사 부도와 탐비 세월의 흐름 멈추게 한 듯 광종의 전폭적인 귀의로 당시 백성들 불심 강화

스님도 온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뜰에 가득 범의 발자국만 있을 뿐이므로 "내가 심판게인 좌화경(雜華經, 80화엄경)을 봉지하고 옥상(玉像, 불상)에 귀의한 탓이며 오백나한이 연공(蓮宮, 사원에 강림한 까닭으로 영자(靈姿, 꿈에 나타난 나한을 가리킴)를 감득하게 된 것이다" 하였다.

다소 긴 이 이야기는 법인 국사가 보원사에서 겪은 불가사의한 일화입니다. 밤에 찾아 온 객승이 인근 성주사의 오백나한 가운데 한 분이었고 그가 다녀간 흔적을 무수한 호랑이 발자국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법인 국사가 화엄경을 지극하게 연구하고 봉지한 까닭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성전기난로
Tae Sung Power Heater

불자님을 위한 특별할인 보급

300대 한정판매

TS 7300 (1.2kW) = 68,000원 → 58,000원
 TS 7200 (2.0kW) = 78,000원 → 68,000원
 TS 7000 (3.0kW) = 88,000원 → 78,000원

강력한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강력난방

특별할인가 58,000원
 ▲TS-7300 적용면적 : 10.56㎡ (3.5방)
 열량/1.2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2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8.50×1.2kW×8×667원
 ●TS 73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A

특별할인가 78,000원
 ▲TS-7000/WJ3000 적용면적: 24㎡ (7~10방)
 열량/3.0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8.50×3.0kW×8×1668원
 ●TS 70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1

특별할인가 68,000원
 ▲TS-7200/WJ2000 적용면적 : 16.5㎡ (5방)
 열량/2.0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8.50×2.0kW×8×1112원
 ●TS 72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
 ※가정용 장치는 부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영구 등 일반 전기, 산업용 전기 사용은 제외)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强者!

7강력 난방으로 전기료 절약!!
 1일 8시간 사용시
 3kW 기준 1,668원
 (누진세 미적용)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 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주사유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주점/펜션)
구입문의 : 080-810-8800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영유정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